

## 대동제의 시작

따스한 5월이 되면 대학생활의 꽃이라 불리우는 축제가 열린다.

많은 대학은 축제를 통해 동아리와 과 활동을 알리고 협동심을 기른다.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 차별화된 대학 축제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대동제'라는 이름만큼은 한성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축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대동제'의 시작과 더불어 대학 축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고자 한다.



1978년 성균관 석전제

대학 최초의 축제는 600여 년 전 조선시대 유일한 국립대학 '성균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의 축제는 기숙사를 개방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날이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친척까지 방문하여 성균관 대학교의 놀이문화를 즐긴 것이 그 유래이다.

이후 경희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대학교에서 1956년 10월에 열린 제1회 대학제를 시작으로 현대적 형태의 대학 축제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각 대학에서도 개최되었다.

1960년대의 대학 축제는 '축전'으로 불리며 포크댄스, 가장행렬 등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역할을 하였는데, 주요 행사로 마라톤, 쌍쌍파티, 메이퀸 선발대회, 학술제, 문학회, 캠프파이어 등이 열렸다. 이 중 인기를 끈 것은 쌍쌍파티와 메이퀸 선발대회였는데, 이성 교제에 엄격했던 당시에 젊은이들은 대학 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대학 축제에 서양의 카니발적인 요소가 가득해 '어색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의 민속 행사도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성대신문 1권 45페이지 <화관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 축제에서는 전통문화인 '탈춤 부흥 운동'이 일어나 탈춤, 씨름,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축제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마당극이나 운동권 노래 공연 등 대학 축제가 비판과 풍자의 기능을 수행했다.



한성대신문 1권 45페이지 <줄다리기모습>

1980년대에도 축제의 주요 행사로 풍물굿, 줄다리기, 마당극, 노래극 등 공동체 문화적인 행사가 열리면서, 단과대별로 개최하던 대학 축제를 '크게 하나 된다'는 의미의 '대동제'로 바꾸게 되었다.



고려대 석탑대동제

대동제라는 이름은 1984년에 고려대학교가 자신들의 축제에 '석탑대동제'라는 이름을 붙이며 시작됐다. 당시 고려대학교 축제에는 여러 대학이 참여한 합동 위령굿이 진행됐는데, 이후 해당 위령굿에 참여한 대학들이 대동제라는 이름을 표방하며 대학가 전반에 대동제라는 이름이 쓰이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대동제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1984년 이후 학원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학생 운동의 확산되었고, 소모적인 행사였던 축제를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격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개인의 소비적 문화가 아닌 민족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 생산적인 행사의 개최'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1970년대의 축제에서는 전통 문화인 탈춤 부흥 운동이 일어나 탈춤, 씨름,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1980년대에도 축제의 주요 행사로 줄다리기, 마당극 등 공동체적인 행사가 열리면서, 단과대별로 개최하던 축제는 '크게 하나 된다'는 의미의 대동제로 바뀌었다.

한성대학교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1976년 한성대학교는 '한성축전'으로 첫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얼마안가 '낙산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총 7년간 유지되었다. 이후 대학 축제를 '대동제'라 이름 붙이던 대학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1986년부터 '낙산축전'을 '낙산대동제'라 이름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성대신문 3권 115페이지(낙산가요제)

또한 팔씨름, 윷놀이, 닭싸움, 널뛰기, 낙산극회, 민속 초청강연, 차전놀이, 전통혼례와 같은 민속놀이를 축제의 놀이로서 즐겼으며, 80년대에는 길놀이, 지신밟기, 풍물굿, 강강수월레, 기동 쓰러뜨리기와 같이 공동체적인 참여가 필요한 행사로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한성대신문 3권 32페이지



한성대신문 3권 757페이지

두 번째는 축제가 사회 현실과 밀착한 문화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7080년대 군사독재라는 정치 상황에서 강제징집 후 억울한 죽임을 당한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굿과 대동놀이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 문화를 통해 실현됐다. 이 외에도 마당극이나 공연 등을 통해 대학 축제는 비판과 풍자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성대학교의 경우에는 88년 “낙산 청년 학도여, 침묵을 깨고 5월 해방의 함성으로 부활하라”, 89년 “오월 핏빛 함성이여! 솟구치는 열망이여! 한치의 굴복없이 타올라라!”, 91년 “민중승리 낙산한마당” 등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기조를 내걸고 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89년 경제학과의 노조탄압 상황극, 88년 사학과의 마당극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95년 <고립과 개별주의의 벽을 깨자> 새내기 경진대회, 92년 <닫힌 교문을 열며>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하기도 했다.



2019년 한성대학교 축제 사진  
(좌)과 주점의 모습 (우)초대가수 마마무

이후 2000년대에는 인기가수의 공연과 동아리와 과에서 여는 주점이 축제의 주요 행사가 되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 천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심지어는 이름난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이 학생회의 능력인양 포장되기도 할 정도이다. 대학 축제가 학문탐구에 대한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도모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표현하여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최해 오던 것이 대중소비 향락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학 축제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진정한 대학축제문화로의 전환 등 새로운 사고와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학축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폭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